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7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4월 29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4 April

아동학대, 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을 진단한다!

I. 논의 배경

2015년 초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으며, 이후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영유아 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초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으며, 이후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영유아 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하루 평균 20여건이던 전화가 50여건으로 급증함.¹⁾
-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²⁾)으로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의 학대 경험은 아동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³⁾
 -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에 해당하는 8,61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300건(3.0%), 171건(1.7%), 96건(1.0%)으로 전체의 5.7%에 해당함.⁴⁾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은 미미하지만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머무는 시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가해자 일부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진술하는 등⁵⁾ 아동학대와 훈육 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교직원과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진단·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의 심층분석 주제인 '아동학대 인식과 현황'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1) EBS 뉴스(2015. 1. 20).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봇물.

2) 아동복지법(<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2015.5.26.인출)

3) 장화정·윤은영·박은혜(2013). 영아대상 방임의 실태 및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1(3), 99-113.

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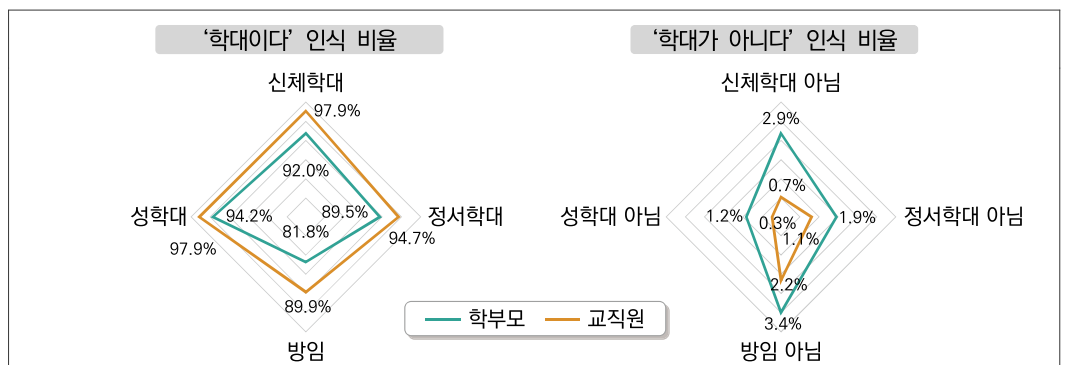
5) 김미숙·김기현·양심영·유비(2015). 지역사회기반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 촉진요인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9, 85-115.



II.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및 성학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의 세부 항목에서도 대체적으로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 외형적으로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가 교직원에 비해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학부모는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동’, ‘팔이나 다리를 묶는 행동’ 을 신체학대 유형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직원은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의 차가 가장 큰 항목은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으로, 학부모가 교직원에 비해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6.6%p 더 높았음.
-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형적 관찰이 어려우며, 종종 정서학대로 나타남 결과나 징후들이 영유아의 성격이나 기질적 특성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음. 정서학대 항목 모두에서 학부모가 교직원에 비해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음.
 - ▶ 정서학대의 결과 혹은 징후는 신체학대에 비해 발견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고, 암묵적으로 행하는 언어적인 무시, 비난 등은 아직까지 정서학대로 인식되는 비율이 낮음.
 - ▶ 학부모가 ‘이 원수야와 같은 욕설을 하는 행동’과 ‘나기라고 쫓아내는 행동’이 정서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85.4%, 80.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학대가 아니라는 인식도 3.0%로 나타남.
- 방임은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고, 신체적·정서적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중 하나로 방임에 대해서도 교직원의 학대 인식수준이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남.
 - ▶ 특히 ‘기관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동’에 대하여 70.6%가 아동학대로 인식하여 다른 항목들에 비해 방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조사대상 학부모 중 10.6%, 교사 중 4.6%는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성학대는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과 같이 영유아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발달,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학대임. 성학대 인식수준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남.
 - ▶ 다만, ‘어른들이 옷을 벗고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을 성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학부모가 교사보다 11%p 낮게 나타남.
- 종합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조사대상별로는 학부모가 교직원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과 정서학대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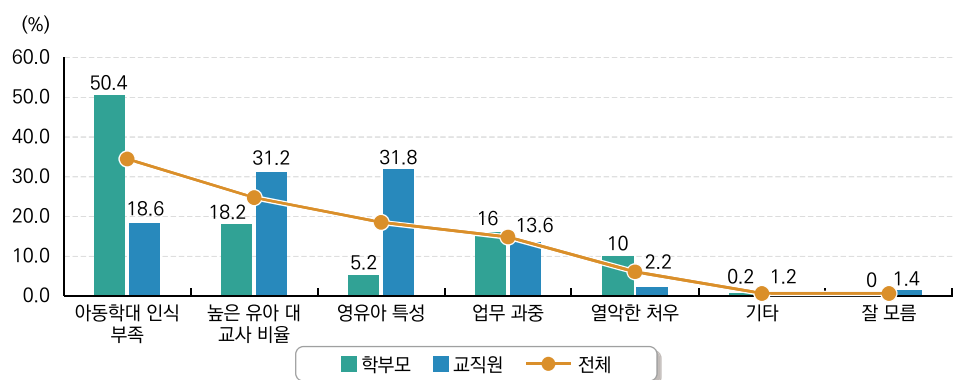


[그림 1] 아동학대 유형별 학부모-교사 인식 차이

Ⅲ.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억지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고 판단되거나, 아동이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교직원에 비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교직원이 학부모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더 높게 나타났음.
 - ▶ 예를 들어,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에게 음식을 넣고, 토하려는 유아에게 “그냥 삼켜!” 라고 말하는 행위’,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책상 등 주변사물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 ‘잘못된 유아를 친구들 앞으로 불러내어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는 행위’는 교직원에 비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교사가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안함을 주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 교사와 부모 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동학대 인식 부족’, ‘높은 교사 대 유아비율’, ‘영유아 특성’, ‘교사의 업무과중’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직원 간 인식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 ▶ 학부모는 ‘아동학대 인식 부족’(50.4%), ‘높은 교사 대 유아비율(18.2%)’, ‘교사의 업무과중’(16.0%), ‘열악한 처우(10.0%)’ 순으로, 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이 낮다는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교직원은 ‘영유아 특성(31.8%)’, ‘높은 교사 대 유아비율(31.2%)’, ‘아동학대 인식 부족(18.6%)’, ‘교사의 업무 과중(13.6%)’ 순으로, 영유아 특성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 이경숙 등(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원인으로 보육교사는 ‘직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⁶⁾



[그림 2]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원인

6)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IV.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제언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부모와 교직원간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역할 및 책임 강화와 동시에,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권리존중 측면에서 아동학대로부터 영유아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를 높이고,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내 아이의 일상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 부모자원봉사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부모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부모와 교직원(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체벌과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훈육과 아동학대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일부 사례들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되거나 기관과 부모의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함.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교사들이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영유아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모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성격적·기질적 특성을 반영한 생활지도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 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교사가 생활지도 측면에서 하는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로 영유아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우려가 교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교직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최은영 부연구위원 eyny@kicce.re.kr